

“조커로서 충분히 좋은 옵션”

벨 감독, 박은선 女축구 국대 복귀에 기대감
총 23명 중 첫날 11명 합류... 한시간 훈련 소화
27일 ‘세계 6위’ 캐나다와 원정 평가전

캐나다와 원정 평가전을 앞둔 콜린 벨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이 7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온 베테랑 골잡이 박은선(서울시청)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18일 오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입소해 오는 27일 캐나다 토론토 BMO 필드에서 예정된 캐나다와의 원정 경기 준비에 돌입했다.

첫 훈련에 앞서 벨 감독은 “선수들과 몇 달 만에 만났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며 “특히 7년 만에 대표팀에 온 박은선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벨 감독은 캐나다 원정에 지소연(수원FC), 조소현(보통), 장슬기(현대제철) 등 주축 선수들을 데려 포함한 총 23명의 선수단을 구성했다.

특히 2015년 캐나다 여자월드컵 이후 대표팀에서 멀어졌던 180cm 장신 공격수 박은선의 합류가 눈에 띈다.

2003년 처음 태극마크를 단 김은선은 A매치 통산 34경기에서 17골을 기록한 베테랑 골잡이다.

벨 감독은 “한국에 오고 지난 3년간 박은선을 꾸준히 지켜봤다. 2019년 서울시청의 경기를 본 뒤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박은선에게

언젠가 대표팀에 올 것 같으니 기회가 됐을 때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후에도 박은선을 관찰하면서 확실히 피지컬적으로 다른 선수가 가져다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경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다. 그게 박은선을 발탁한 이유다. 최근에 서울시청과 수원FC 경기에서 특집하는 걸 보고 대표팀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해줄 거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벨 감독은 박은선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로 기대했다.

그는 “조커로서 충분히 좋은 옵션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도쿄올림픽 중국과의 플레이오프에서 상대가 큰 선수를 투입해 변화를 주는 걸 봤다. 박은선이 우리에겐 그런 선수다. 경기 내내 전방부터 많이 뛰는 걸 기대하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 투입했을 때 역할을 잘 수행해줄 거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에서 사상 처음 준우승한 여자 대표팀은 이번 캐나다 원정을 통해 내년 7월 호주와 뉴질랜드가 공동 개최하는 여자월드컵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또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도 대비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인 캐나다는 한국(18위)보다 순위가 높다.

1995년부터 7회 연속 여자월드컵 본선에 올랐으며, 내년 월드컵도 참가가 유력하다. 지난해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선 여자축구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상대 전적에선 한국이 8전 1승1패로 절대적인 열세다. 2013년 1월 중국 영전에서 열린 4개국 친선대회서 3-1 승리한 게 유일하다.

지소연은 “세계적인 강팀을 상대로 많은 걸 배울 기회”라고 기대했다.

소집 첫날엔 총 23명 중 11명만 합류했다. 수원FC(문미라, 전은하, 주효주)와 현대제철(김정미, 최유리, 손화연 등) 선수들은 소속팀 일정 등을 이유로 20일 오전 입소해 한 차례 훈련을 진행한 뒤 오후 캐나다로 떠날 예정이다.

7일부터 수원FC에 합류하는 지소연은 일찍 파주 입소가 가능했다.

벨 감독은 “안타깝게 완전체는 아니지만, 11명이 모였다. 해외파의 경우 지난 5월 초가 마지막 경기였다. 이후 정상적인 훈련을 못 해서 빨리 팀에 적응하고 컨디션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로 출전 전 완전체가 되면 1~2번 전술 훈련할 예정이다. 그전에는 소그룹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을 올리는 데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30분가량 공개된 훈련에는 개인 훈련으로 빠진 이금민(브라이튼)을 제외한 10명이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몸을 풀었다.

화기에배한 분위기 속에서 선수들은 가벼운 달리기부터 공 킥기 훈련 등을 소화했다.

/뉴시스



여자축구대표팀 벨 감독과 박은선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성료 제조 등 9개 종목 2000여명 참가

2022 전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가 무주군에서 성황리 열렸다. 지난 17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또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3년만에 진행된 것으로, 게이트볼과 그라운드골프, 체조, 탁구, 테니스 등 총 9개 종목에서 도내 노인 생활체육 동호인 2000여 명이 참가해 시군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개·폐회식 없이 종목별 경기장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에 참여한 노인들은 잠시나마 운동갈증을 해소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회 결과 게이트볼은 군산시가, 그라운드골프는 무주군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전주시는 탁구와 체조, 테니스, 고리갈기, 제기차기 등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완주군은 투호에서, 부안군은 윷놀이에서 우승을 했다.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또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2 전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가 무주군에서 열렸다. 사진은 참가 선수들이 게이트볼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

한편 대회 최고령자에게 주어지는 장수상에는 박순녀(92, 여), 강병덕(91)씨가 받았다. 정강선 회장은 “노인들이 체육을 통해 활기

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우기별 체육 프로그램을 도민들에게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장애인 태권도부 창단 협력

태권도진흥재단-서울 중랑구, 협약 체결



태권도진흥재단(이 사장 오용환, 이하 재단)과 중랑구(청장 류경기)는 지난 17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국가 태권도 진흥 및 보급을 위한 협력, 장애인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등과 관련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장애인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위해 태권도진흥재단과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장애인 선수를 비롯한 관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사는 중랑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용환 이사장은 “지난 2019년 비장애인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해 다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중랑구와 뜻깊은 협약을 맺었다”라며 “특히 장애인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신 류경기 구청장님과 함께 장애인·비장애인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중랑구에서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